2025 Spring - 간호정보시스템 분석 및 설계

Assignment #4: 컨셉 비디오

은피니티(Eunfinity)

2025-29211 김은지 D046404 임은영

1. 지난 과제 요약

- redesign 영역

: 복막투석을 하는 만성신부전 환자라면 누구나 스스로 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고자 한다.

- 선택한 solution 및 HMW, POV

: 프로토타입 3개 중 가장 성공적이었던 프로토타입은 다음을 바탕으로 도출되었다.

- Solution: 무드 트랙킹을 하여 환자의 심리적 상태를 의료진이 데이터로 파악하는 기능
- HMW: 어떻게 하면 의료진이 환자의 심리적 어려움을 파악하여 지지해줄 수 있을까?
- POV: 복막투석을 처음 시작하는 만성신부전 환자는(user) 자신의 상태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발생하는 불안이나 두려움과 같은 심리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insight) 진단 초기부터 정보를 기반으로 한 정서적 지지가 필요하다.(needs)

2. Task

가장 성공적이었던 프로토타입으로 사용자가 수행할 수 있는 Task는 다음과 같다.

난이도	사용자가 수행할 수 있는 Task
단순	 복막투석 환자가 감정을 기록하기 위해 앱을 열고, 매일 감정과 코멘트를 기록한다.
보	- 부정적 감정이 5일 이상 계속되어 더 자세한 검사를 권장받을 때, 모든 검 사에 응답한다.
복잡	 자세한 검사 후 환자가 필요하다고 느끼면 위치 기반 또는 선택 지역구 내정신건강 관련 기관의 정보를 통해 언제든 다른 전문기관을 활용한다. 의료진이 환자가 기록한 감정 데이터를 확인하고 필요 시 정신건강전문의에게 협진을 의뢰한다. 환자가 스스로 도움을 요청한 전문기관의 전문가는 환자가 기록한 감정 데이터를 바탕으로 환자에게 필요한 도움을 제공한다.

그 중 볼드체 Task를 선정하여 컨셉 비디오를 위한 스토리보드를 제작하였다.

3. Task 별 스토리보드

Storyboard #1. 복막투석 환자가 감정을 기록하기 위해 앱을 열고, 매일 감정과 코멘트를 기록한다.











진단 후 우울한 표정	
Who	복막투석을 시작해야 한다고 진단받은 환자가
Where	집에서 만성신부전을 진단받은 당시를 떠올리며
What	우울한 표정을 짓고 있다.
앵글/클로즈업	환자 역할의 표정을 정면에서 찍다가 점점 클로즈업
대화/나레이션	나레이션: 신가능이 더이상 얼마 남지 않아 복막투석을 해야 한다고 진단받았다. 대사: "이제 복막투석을 해야 한다니 앞으로 어떡하지?"





오늘의 (감정을 기입하고 감정에 대한 코멘트를 작성하고
Who	앱을 통해 감정을 기록하려고 앱을 켠 환자가
Where	자신의 집에서
What	오늘의 감정을 기압하고 감정에 대한 코멘트를 작성한다.
앵글/클로즈업	환자 옆에서 핸드폰 화면 조작하는 모습을 촬영한다. 핸드폰 화면 클로즈업.
대화/나레이션	대사: "PD Care +라는 게 있구나. 오늘 4월 00일. 오늘 내 기분은 나는 오늘 왜 불안하다고 느꼈을까?"

환자 스스로 기록해 온 감정을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Who	꾸준히 감정을 기록한 환자가
Where	핸드폰을 할 수 있는 어느 곳에서나
What	그동안 기록해온 감정을 한눈에 본다.
앵글/클로즈업	핸드폰 화면에서 환자를 정면으로 앵글 변경하여 환자가 스스로의 감정을 파악하는 것을 보여줌.
대화/나레이션	나레이션:2주 동안 환자가 스스로 감정을 기록하였다. 대사: "투석액 배역이 잘 안됐을 때 내 기분이 별로 안 좋고, 식단 관리를 좀 잘했을 때에는 기분이 좀 좋았네."

Storyboard #2. 부정적 감정이 5일 이상 계속되어 더 자세한 검사를 권장받을 때, 모든 검사 항목에 응답한다.







	자세한 검사 권장하는 팝업이 뜸
Who	5일 연속 부정적 감정을 기입한 복막투석 환자가
Where	집에서
What	자세한 검사를 권장받는다.
앵글/클로즈업	계속 핸드폰 화면 타이트
대화/나레이션	나레이션: "기분이 계속 좋지 않다고 자세한 심리검사를 할 것을 권장받았다."



	환자가 각 설문지의 각 문항들에 응답함
Who	자세한 검사들을 할 것을 권장받은 환자가
Where	책상 앞에 앉아
What	자세한 검사들의 항목에 하나씩 응답한다.
앵글/클로즈업	환자가 응답하는 것을 하나 찍고 환자의 뒷모습까지 넓게 찍는다
대화/나레이션	대사: "그럼 우울 검사를 해봐야겠네.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일들이 귀찮게 느껴졌다. 거의 매일. 다음."



응답 후	
Who	자세한 검사를 전부 마친 복막투석 환자가
Where	책상 앞에서
What	정신건강검사 결과가 좋지 않음을 알게 된다.
앵글/클로즈업	검사 결과를 확인하게 된 환자의 모습을 비춘다.
대화/나레이션	나레이션: 검사 결과 중등도 우울 단계가 나왔다.

Storyboard #3. 자세한 검사 후 환자가 필요하다고 느끼면 위치 기반 또는 선택 지역구 내 정신건강 관련 기관의 정보를 통해 언제든 다른 전문기관을 활용한다.







환자가	환자가 이런 도움이 필요한가? 하며 정보에 관심을 보임		
Who	검사 결과가 좋지 않아 병원 등 전문기관의 도움을 권장받은 복막투석 환자가		
Where	자신의 집에서		
What	도움을 받아야 할지 고민한다.		
앵글/클로즈업	고민하는 환자의 얼굴을 정면에서 바라본.		
대화/나레이션	대사: "도움이 필요한가? 병원을 다녀봐야 하려나?"		



	위치 기반하여 전문기관의 정보 제공
Who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해보려는 복막투석 환자가
Where	자신의 집에서
What	위치기반 서비스를 바탕으로 제공되는 전문기관의 정보를 확인한다.
영글/클로즈업	핸드폰 화면 타이트에서 점점 말어지며 환자를 측면에서 활영
대화/나레이션	대사: "집 주변에서 다닐 수 있게 현재 내 위치에서 가까운 전문기관이 어디 있는지 확인해보자."



	환자가 직접 정보를 활용해 전문기관을 이용함
Who	앱을 통해 감정을 기록하려고 앱을 켠 환자가
Where	집 주변의 전문기관에서
What	감정에 대한 상담을 받는다.
앵글/클로즈업	잠시 화면이 끊어졌다가, 전문기관에서 전문적인 상담을 받는 환자와 면당자의 모습을 투 솟으로 촬영
대화/나레이션	나레이션: 환자는 집 주변의 정산간당의학과를 방문하여 전문제 성당을 받는다. 내사 '개가 최근 복막투석을 사작하고 투석이 잘 안 되고 있나 할 때마다 우울학교 불안하더라고요." 역사 '범의 합는시겠네요. 투석 환자를 대부분이 20일처럼 그렇게 심리적인 어려움을 많이 강합해요. 정말 잘 오셨어요."



복막투석 환기	가가 앱을 사용하며 스스로 정신건강을 관리하는 모습
Who	앱을 통해 전문기관에서 도움을 받기 시작한 복막투석 환자가
Where	자신의 집에서
What	차를 마시며 매일 기록한 감정을 바라보며 만족한다.
앵글/클로즈업	환자의 정면에서 미디움
대화/나레이션	대사: "그래도 초창기에 비하면 필요할 때 상담도 받으면서 덜 불안한 것 같아. 좀 자신감도 생겼어." 나레이션: 복막투석으로 인한 걱정과 불안, 우울을 죽면하고 정신건강을 스스로 관리하는 모습을 보인다.

4. 비디오: Task 3개를 모두 보여주는 컨셉 비디오

YouTube 링크: https://youtu.be/BZ_RQlhsveA

2025-1 간호정보시스템 분석 및 설계

컨셉 비디오 제작하기

은피니티(Eunfinity) 2025-29211 김은지 D046404 임은영

팀원 소개와 팀에서 풀고자 하는 문제 영역

- 팀원 소개
- 2025-29211 김은지
- D046404 임은영

• 풀고자 하는 문제 영역

복막투석을 하는 만성신질환 환자라면 누구나 스스로 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고자 한다.



PD Care +

⁶⁶ 마음 챙김이 복막투석과 건강한 동행의 시작입니다. 11

• 문제 및 해결책 개요

<문제>

복막투석 환자가 심리적 어려움을 겪어도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함 <해결책>

환자 스스로 감정을 인지 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 록 정보 접근성을 높임 PD care+

마음 온도계

Get Started

Log In

Task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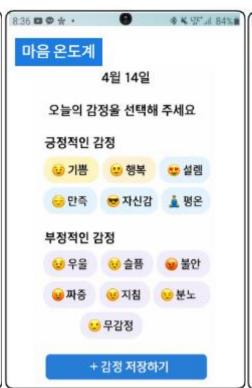
복막투석 환자가 감정을 기록하기 위해 **앱을 열고, 매일 감정과 코멘트를 기록**한다.

난이도 단순

문제 복막투석 환자들은 진단 초기와 치료 과정 중 심리적 어려움에 직면하기 쉽다.

핵심 **감정을 기록하고 돌보는 것**은 건강관리에 가치 서 중요한 부분이다.







Task 2

부정적 감정이 5일 이상 계속되어 **더 자세한 검사**를 권장 받을 때, **모든 검사 항목에 응답**한다.

난이도 보통

목막투석 환자들은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면서도 그것이 도움이 필요한 문제라는 인식을 하지 못해,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환자 스스로 감정 상태를 객관적으로 인지하여 전문적 도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중요하다.



Task 3

자세한 검사 후 환자가 필요하다고 느끼면 **위치 기반 또는 선택 지역구 내 정신건강 관련 기관의 정보**를 통해 언제든 다른 전문기관을 활용한다.

난이도복잡문제환자가 심리적 어려움을 겪더라도 정신건강 전문기관을 실제로 찾고 이용하는 데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학심가치환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여 실제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게 하고, 전문가 상담을 통해 심리적 회복과 질환 관리를 함께 도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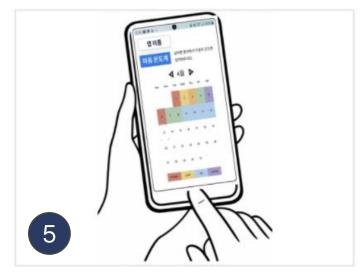
스토리보드 - Task 1: 감정 기록 앱 열고, 매일 감정 기록 (단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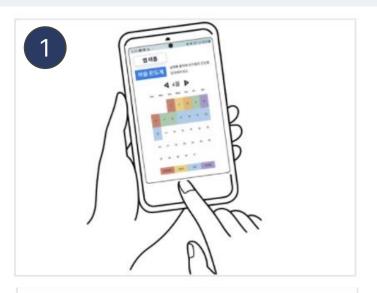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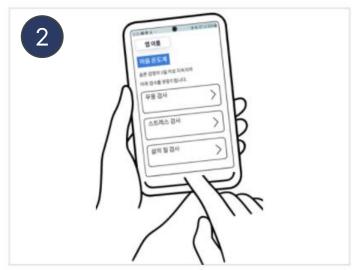


- ✓ 카메라: 환자 우울한 표정은 정면, 앱 조작은 핸드폰 화면을 환자 측 면에서
- ✓ 배우: 우울함 → 결심 → 깨달음
- ✓ 나레이션: 만성신질환 진단 사실,앱 조작 행위

스토리보드 - Task 2: 부정적 감정이 지속될 경우, 추가 검사에 응답 (보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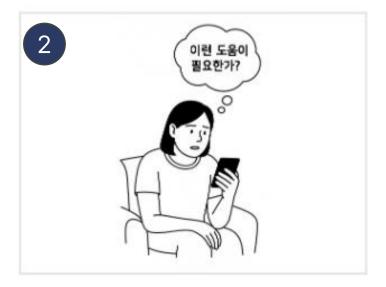




- ✓ 카메라: 주로 앱 조작이라서 핸 드폰 화면 타이트 앵글 유지하다 검사 결과를 알게 된 환자 바스 트샷
- ✓ 대사: 검사 진행 장면이기 때문 에 각 항목을 읽으면서 응답 결 과
- ✓ 나레이션: 검사 권장 배경 및 검 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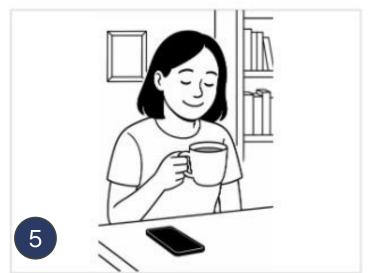
스토리보드 - Task 3: 지역 내 정신건강전문기관 정보 활용 (복잡)











- ✓ 카메라: 환자 표정 정면, 앱 조작 은 핸드폰 화면을 환자 측면에서, 상담은 투 숏
- ✓ 배우: 내담자와 면담자 2명
- ✓ 독백: 감정 관리하며 긍정적 변화

컨셉 비디오



요약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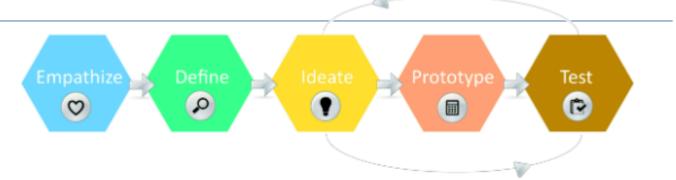
- PD Care +: "마음 챙김이 복막투석과 건강한 동행의 시작입니다."
- 감정 기록 → 자세한 심리 검사 → 전문기관 정보 제공, 연계
- Target user의 redesign하고 싶은 경험을 시각화

배운 점

- target user의 앱 사용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며, 스스로 보완해야 할 점 발견
- 앱 구조를 잡고 흐름을 구축

다음 단계는?

- 전반적인 앱 구조와 기능을 더 자세히 구축
- 테스트 후 피드백 반영하여 프로토타입 제작



감사합니다.